

## '94 제1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 경 기 양 돈

취재 : 이 종 길 차장

본회 제1검정소가 시행한 '94년도 종돈 능력검정에서 우수 농장상을 수상한 경기양돈(대표 : 이윤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665번지, 전화 : 0363) 441-4829).

경기양돈은 지난해에 챔피언돈 7회 출품, 평균 선발지수

214점, 합격두수 177두, 합격률 66.8%로 총 237.8 점을 얻어 세왕축산에 이어 2위를 차지, 우수농장에 선정되었다. 경기양돈은 '93년에도 제1검정소에서 우수농장으로 선정돼 일시적으로 좋은 종돈을 출품하는 것이 아니라, 돈군의 전체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농장이 2년 연속 우수농장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발강도를 높여서 종돈을 선발한 후 개량에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경기양돈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백색계통을, 캐나다에서 듀록을 도입해 기초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종돈도입없이 자체농장의 우수종돈을 강선발해 육종을 해나가고 있다. 특별히 어느 형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외부에서 혈액을 도입하고 있다.



눈 내리는 사무실 앞에서  
(맨우측 이윤원 사장과 그 옆에 남광운 농장장의 모습)

강원도의 산간지역에서, 인근에 양돈장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종돈업을 하기 때문에 종돈장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질병없는 종돈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특히 농가에 분양되는 종돈은 모두 방목장에서 충분한 운동을 시

켜 분양하고 있어 지체불량 문제가 거의 없다. 현재 2천여두의 규모에 랜드레이스 22%, 대요크셔 56%, 듀록 20%, 피에트레인 2%의 비율로 종돈을 보유하고 있다. 비육돈은 일체 생산하지 않고 모두 순종만 생산하는 전문종돈장이다.

종돈장으로서의 규모가 다소 적다고 생각되어 금년 4월부터 450평의 돈사를 최신시설로 지어 체계적인 육종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로 신축할 돈사에는 검정시설도 설치해 농장검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윤원 사장은 “경기양돈이 2년 연속 우수농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정성어린 종돈 관리와 고객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보다 우수한 종돈 생산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